



## 2023년 교구장 사목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복음선포의 과제를 가장 큰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이 사명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특별 전교의 해를 지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Ecclesia ad extra)로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교회 내부를 향해서는(Ecclesia ad intra) 어떻게 쇄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고 쇄신해야 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4차례에 걸친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교구가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이 과제들을 한 걸음씩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I. 소통하는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모습을 ‘하느님 백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현장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시며, 그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제9항 참조)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일치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구 안에서 주교와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쇠신할 점과 세상에 가장 시급하게 외쳐야 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해 나갑니다.

### 1. 본당별 ‘하느님 백성의 대화’

‘3개년 특별 전교의 해’(2020~2022)를 통해서 광주대교구는 새로운 교회를 위한 변화의 여정을 시작했고, 평신도-수도자-성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구와 지구의 차원을 넘어서 각 본당에서도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시도해봅시다. 2021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초대하셨던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우리 교구의 교회론이요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의 틀이나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각 본당에 맞는 방식으로 전 신자들이 본당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본당사목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신자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고 종합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나갑니다.

### 2. 본당 사목협의회의 정체성 강화

지난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서 우리는 좀 더 일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신자 재교육을 통하여 평신도 의식을 강화하고, 본당 사목계획을 수립할 때 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함에 공감하였습니다. 본당 사목협의회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사목회의 역할과 사목 협조자로서의 자세를 고취시키고 분과별 책임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 3. 본당 사목의 연속성 유지

본당 사목의 연속성을 위해서, 본당 안에서 사목자가 바뀌어도 지역사회에 맞는 사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당 형편에 맞게 사제와 사목협의회가 사목계획을 함께 세우고 본당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 II. 젊은이에 대한 관심

우리는 또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젊은이들의 소중함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도 미사에 참여하고 공동체 활동에 함께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서도 젊은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얻었고,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광주대교구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어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경청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1. 대화와 체험을 통한 신앙의 전수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하느님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며, 어른들이 가진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과 어른들이나 사목자들의 방식으로 교리교육을 강제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이 바라는 신앙교육과 체험들을 제공해주도록 노력합니다.

### 2. 청소년들의 공간과 꿈을 만들어 주기

특히 코로나로 인한 행사와 모임들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주일학교 활동을 재개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본당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들이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우리 청소년 사목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동안 공부에 대한 강박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고, 꿈을 갖지 못한 채 자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삶에 지친 그들에게 쉼터가 되어 주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책임감과 흥미를 갖고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사목자와 선생님들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원하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방식으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꿈과 희망을 되살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3. 청소년 사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는 “청소년 사목 방법론에서 결코 간과

해서는 안 되는 특징은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복음화를 수행하는 자세’ ” (제53항 참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는 본당뿐만 아니라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구와 지구, 그리고 본당의 원활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 III.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교황청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낸 뒤, 이후 7년 동안 지구 생태계와 환경을 살리기 위한 집중적인 여정으로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나서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인 지구 곧, ‘공동의 집’을 살리기 위한 노력,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교회의 가르침, 즉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담긴 소중한 가르침들을 읽고 되새김으로써 삶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교구는 지난 제2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전 교구민이 함께 동참하기를 논의했습니다.

#### 1. ‘기후 정의’에 관한 지속적 캠페인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에게 더 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부유한 나라들이 일으킨 기후 변화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로부터 발생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 ‘기후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기후 정의와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지속적 캠페인, 즉 생명 평화 미사, 생명 평화 순례, 탈원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2. 생태환경 교육 자료의 보급과 실천

‘공동의 집’인 지구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이 절실합니다. 우선, 교구 차원으로,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생태환경농업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교구청 내에 「바오로 가게」가 개설되어 플라스틱 사용과 쓰레기를 줄이는 (zero-waste) 운동을 통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도 생태환경에 관련된 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모든 신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 3. 생태환경학교 개설을 통한 활동가 양성

교구에서는 생태환경위원회를 통해 생태환경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실천 활동가를 양성하도록 생태환경학교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기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며, 기후 변화를 통한 생태환경의 변화를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본당에서도 생태환경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전문적인 활동능력을 키워가며, 신자들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전개해가도록 노력합니다.

## IV. 복음화를 위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교회

우리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서서히 우리 삶의 기반들을 다시 다져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선 자세로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 1. 하느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기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건네시는 거룩한 말씀이며,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하여 묵상해야 하는 근본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각 공동체에서 사목자들이 직접, 혹은 교구의 성경 봉사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며, 함께 읽기와 쓰기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 2. 미사와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기

성사는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은총의 통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줍니다. 그중에서도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은총의 보고(寶庫)입니다. 신자들의 의무인 주일미사뿐만 아니라, 매일 봉헌되는 미사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매일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을 자주 영하여,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고해성사에도 더 자주 참여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갑시다.

각 본당의 사목자들은 매일 빠짐없이 미사가 봉헌되도록 배려하고, 신자들이 더 자주 가깝게 고해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배려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3. 세상을 향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징은 실제로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2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나누는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 예산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기금으로 확보하여, 가깝게는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큰 안목에서는 선교지 교회 및 가난한 나라와 연대하는 실질적인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지난 3년간의 특별 전교의 해를 마무리하고, 지난날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다짐을 통해 우리 광주대교구 공동체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 안에서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내 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주는 성사적인 삶이 되도록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필리 1,6)

2022년 11월 대림 제2주일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 현 진

교구장 옥 현 진 시몬 대주교